

“고성능 수소차, 현대차 말고 누가 만들 수 있나”



비어만 연구개발 본부장 간담회

친환경·자율주행 리딩기업 도약
하이 퍼포먼스·수소차 기술 자신

“(기업간)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 중요한 건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에서 ‘친환경’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리딩(선도) 기업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본부장(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패권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자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현대차

신감을 보였다. 또 자율주행은 협업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자율주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어만 사장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며 “협업도 지속적

으로 진행중이며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사업태스크를 통해 우리만의 방식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완성차 브랜드가 자율주행

수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대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우리 차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최고의 안전을 제공하는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어만 사장은 30여년간 BMW에서 고성능 ‘M’ 시리즈 차량 개발을 주도하다 2015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했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을 선보이고 제네시스 G70, 기아차 스틱어를 내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비어만 사장의 영입과 함께 현대차그룹은 최근 고성능 차량의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비어만 사장은 “북미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G70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능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인정받고 있다”며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기술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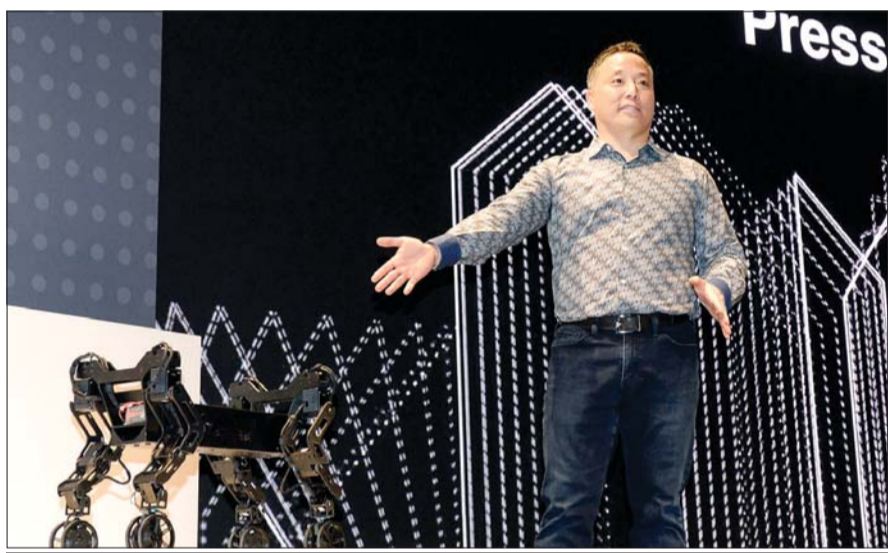
장 경쟁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특히 환경규제가 엄격해지면서 하이 퍼포먼스 차량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는 “환경규제가 강화되어도 내연기관에서 편 투 드라이빙의 의미가 줄어들어도 현대차의 편 투 드라이빙이 희미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운전의 재미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 전기차 기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드러냈다. 그는 “고성능 수소차는 현대차가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겠나”며 “(수소차 기술은) 우리가 가장 앞선 회사이기 때문에 수소를 베이스로 한 고성능자동차를 만든다면 당연히 우리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는 올해 열리는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N브랜드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할 방침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크레들 존 서 상무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걸어다니는 신개념 자동차 ‘엘리베이트(Elevate)’의 콘셉트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엘리베이트가 공개되자 현지 언론과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현대차

걸어다니는 車 ‘엘리베이트’ 최초 공개

축소형 프로토타입 모델 시연
상용화 땀 다양한 분야서 활약

현대자동차가 ‘CES 2019’에서 이동성의 개념을 무한히 확장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다.

현대차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9 CES’에서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Elevate)’ 콘셉트카를 처음 공개하고, 축소형 프로토타입의 작동 모습을 시연했다.

현대차의 로봇 및 전기차 기술이 적용된 ‘엘리베이트’는 일반 도로는 물론 4개의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움직여 기존 이동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 및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모빌리티다. ‘엘리베이트’는 현대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현대 크레들’과 미국 디자인 컨설팅 회사 선드브 페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이날 현자 미디어 행사에서는 ‘엘리베이트’의 축소형 프로토타입 모델이 공개됐으며, 바퀴가 달린 로봇 다리를 이용해

무대를 걸어다니다가 설치된 계단을 손쉽게 오르내리는 모습, 다리를 접어 일반 자동차와 같이 변신하는 모습 등을 선보였다.

‘엘리베이트’는 전기 동력이 사용되며, 5개의 축으로 설계된 로봇 다리를 이용해 포유류나 파충류 등 여러 형태의 걸음걸이로 이동할 수 있어, 다양한 지형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엘리베이트’는 시속 5km 수준의 보행 속도를 유지하며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한 채 1.5m 높이의 벽을 넘어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로봇 다리를 차체 안쪽으로 접어 놓으면 행 모드로 변신한 후 기존 자동차와 같이 바퀴를 이용해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선보였다.

‘엘리베이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혹독한 오프로드 코스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루비콘 트레일의 가상 주행 코스를 완주해 주행 및 보행 능력을 확보했다. ‘엘리베이트’가 상용화될 경우, 수색·구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 발표

글로벌 전 차종 커넥티드카 시스템 구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 전환 예고
맞춤형 경험 제공·커넥티드카 확대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확보... 혁신 기술 박차

현대차가 CES 2019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고도화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9 CES’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고도화를 위한 각 부문별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현대차의 미래 혁신 전략은 ▲전동화(EV) 기반의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 제공 ▲글로벌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대 및 오픈 플랫폼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인공지능 혁신 거점 구축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2020년 ‘전용 플랫폼 전기차’... 모빌리티 방향성 ‘스타일 셋 프리’

현대차는 전기차와 스마트 IT 기기화 되는 미래 모빌리티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일 셋 프리(Style Set Free)’ 고객 경험 전략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스타일 셋 프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인테리어 부품과 하드웨어 기기, 상품 콘텐츠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현대차는 기술로 인해 자유로워진 운전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또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2020년에 선보인다. 여기에 ‘스타일 셋 프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넓은 내부 공간 확보가 가능해 탑승자의 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동력계 부품의 교체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외부 하드웨어 기기 탑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소형가전, 사무기기 등 외부 하드웨어 기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에 최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원홍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 부사장



현대차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9 CES’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고도화를 위한 각 부문별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조원홍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이 현대차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차

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토대로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스타일 셋 프리’ 방향성 아래 자율주행 기술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연결의 초월성’ 커넥티드카 리딩 전략

현대차는 미래 초연결 사회에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커넥티드카 분야 글로벌 리딩 전략으로 ‘연결의 초월성’을 제시했다. 2년 전 CES에서 현대차가 모빌리티 방향성 중 하나로 제시한 ‘연결된 이동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확장시키고 연결하겠다는 현대차의 커넥티드카 비전이 담겨 있다.

연결의 초월성 전략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현대차는 오는 2022년 글로벌 커넥티드카 가입 고객을 1000만명 확보하고, 모든 차종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이미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제공 중인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판매 전 지역(인도, 브라질,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서도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형 R&D 생태계(오픈 에코 시스템, Open Ecosystem) 구축을 통해 기업과 개발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구성 주체들의 상호 작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운전자에게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커넥티드카에 최적화된 전용 운영체제, 클라우드 플랫폼, 네트워크 연결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5대 혁신 거점 완성

현대차는 올해 전세계 5곳에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확보를 통해 글로벌 혁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현대 크레들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제로원’, 이스라엘 ‘현대 크레들 텔아비브’를 오픈했으며 올해 베를린과 베이징에도 센터를 설립해 글로벌 5대 혁신 거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들과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에 나서게 된다. 또 스타트업을 포함해 현지 대학, 전문 연구기관, 정부, 대기업 등 폭넓은 혁신 생태계 구성 원들과 긴밀한 교류를 갖고 공동 연구활동을 벌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하는 사업 실증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현대 크레들’에서 개발한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를 처음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지난 11월 인공지능 전문 연구 조직 에어 랩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전문가로 김정희 이사를 영입하는 등 미래 혁신기술인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안에 미국에 인공지능 전문 연구 조직 에어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 연구망을 해외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